북스

Books

인간은 언제부터 연기를 마셨을까

흡연의 문화사 샌더 L. 길먼외 지음

고대 마야인들부터 현대까지 담배의 전파경로·역사·문화

'산살바도르 해안에 도착하자 원주민들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말린 잎사귀를 가져왔다.'

유럽 언어로 기술된 담배에 대한 최초 기록으로 알려진 콜롬버스의 1492년 10월 12일 일기에 적힌 이 '잎사귀'가 바로 담배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항상 무엇인가를 피워왔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3천년전부터 흡연(吸煉)을 질병 치료법으로 사용해 왔다.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하는 흡연인구는 2005년 현재 13억명. 우리나라는 올 6월 현재 만 20세 이상 흡연율은 26.4%, 20~30대 남성 흡연율은 55%에 달한다. OECD 국가중 1위다.

가장 중독성이 강한 소비 행위로 꼽히는 '흡연'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을까.

일리노이대 샌더 L. 길먼 교수 등 33명이 집필한 '흡연의 문화사'는 인류를 사로잡은 매혹적인 향기, '흡연'에 대한 모든 것을 300여장의 컬러 사진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책에서 언급하는 흡연은 아편, 대마초, 코카인 등 모든 '연기'를 아우르지만 주 소재는 '담배'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흡연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1부는 담배를 신의 화신으로 여겼던 마야인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흡연의 전파 경로와 유럽·아시아 등 각 문화권별 특징 등을 기록했다.

책에 따르면 17세기까지 흡연은 상류층과 지식의 상징이었고 건강한 판단력, 명쾌한 추론 능력, 지조있는 정신을 낳는 '일상의 필수품'이었다. 어떤 이는 흡연을 '마른 취기(Dry drunken)'라 비판했지만 파이프 연기는 '신사의 냄새'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담배는 가난의 상징, 각종 질병과 사망의 원인으로 지탄받고 있다.

2부 '예술과 문학속 흡연'은 미술·문학·영화에서 그려지는 흡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재즈인들은 마리화나 피우는 법까지 전수받았고 흡연은 오페라와 영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상징으로 활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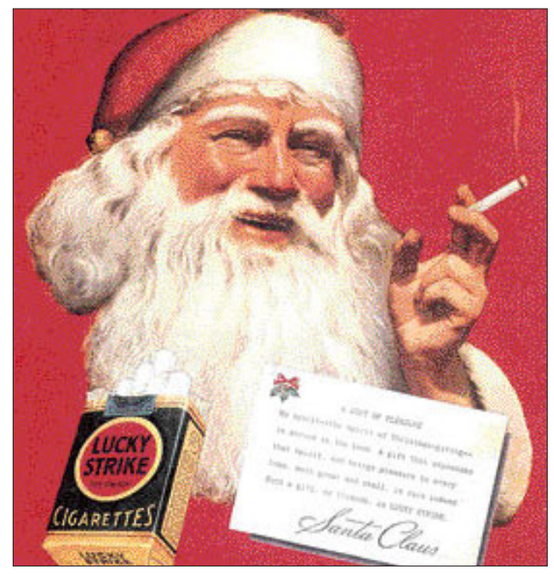
3부 '성(性) 그리고 민족성의 차이'에는 담배가 여성운동가들의 의사 표시 도구였고 동성애의 은밀한 상징이었다는 이야기, 흡연을 통해 유대인 등 각 민족의 특징을 발견한 글들이 실려 있다.

4부 '불붙은 흡연 논쟁'에서는 흡연을 즐거움·치료법으로 보는 이들과 악습·질병으로 보는 이들의 투쟁 과정과 여성·아동도 담배의 잠재적 소비자로 변모시키기 위해 정교한 마케팅을 구사하는 담배업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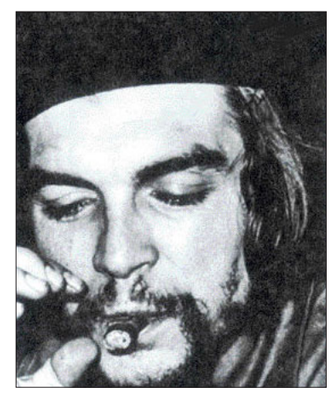
특히 한국어판에는 안대희(명지대) 교수가 조선시대 이옥의 저서 '연경'(煉經)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연경'에 담긴 '담배가 맛있을 때' '흡연의 멋' 등을 읽다보면 애연가들은 '맞는 말'이라며 무릎을 칠지도 모르겠다.

〈이마고·3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담배업자들은 여성과 아동도 잠재적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광고 전략을 구사한다. 크리스마스에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우는 산타의 모습을 담은 1936년의 광고.



쿠바 혁명의 상징인 체 게바라가 여송연을 피우는 모습은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얼굴이다.

'인천…' '노르망디…' 세계의 전쟁 시리즈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를 바꾼 주요 전쟁과 전투 등 군사에 관련된 주제를 엄선한 '세계의 전쟁' 시리즈가 나왔다.

이번에 출간된 '인천 1950'과 '노르망디 1944' 등 두 권은 영국의 군사 전문 출판사 오스프리(OSPREY)의 '캠페인(Campaign)' 시리즈를 번역한 것이다.

'인천 1950'은 일단 현재 국내에 인천상륙 만을 다룬 단행본이 없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일러스트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실려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작전의 배경과 성공 후 과정 등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노르망디 1944'는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진행과정과 비화 등을 실었다.

〈플래닛미디어·각권 1만3천원〉

'세기의 커플' 반세기 사랑의 미스터리

보부아르와 사르트르 천국에서 지옥까지 헤이젤 로울리 지음

남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보기로' 약속을 한 뒤 실행에 옮기는 것을 '계약결혼'이라고 한다. 각자 사랑의 영역을 존중하는 자유가 없다면 불가능한 관계다. 20세기 초 이미 '계약결혼'을 했던 프랑스의 지성 장 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는 '세기의 커플'로 알려져 있다.

사르트르는 반식민주의 투쟁의 대변인으로 통하고, 보부아르가 저술한 '제2의 성'은 현대 여성운동의 고전으로 꼽힌다. 이들은 1950~60년대 알제리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표시를 분명히 했던 '현실 참여형 지식인'이었다.

'천국에서 지옥까지'를 쓴 헤이젤 로울리는 대학에서 '보부아르와 실존주의'로 박사 학위를 받고, 1976년에는 보부아르와 직접 인터뷰를 했던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전문가다. 저자는 이들의 기묘하고도 복잡한 사랑에 매료돼 25년간 자료를 취합하고 관계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책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평전이라기 보다 이들 관계 또는 사랑에 대한 평전이다.

책은 소르본 대학에서 이뤄진 이들의 만남에서 죽음까지 51년을 시대별로 나눠 다루고 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각자의 연인 수만도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보부아르의 철학 제자였던 17세 여자 아이 올가는 이들 사이의 삼각관계의 주인공이 되고 사르트르는 다시 올가의 여동생 완다와, 보부아르는 올가의 남편 보스트와 사랑을 나눈다.

이런 식의 복잡한 사랑 지도는 반 세기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저자는 이들의 사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서로에게 허용한 자유' 때문이라고 말한다. 1960~70년대 젊은이들은 이들의 열린 관계를 모델로 삼기도 했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주고받은 방대한 양의 편지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책으로 이미 출간된 것들도 있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도 있다. 이들 관계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존자들 가운데 몇몇은 편지 공개를 꺼린 탓에 집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해냄·2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1960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휴가를 보내는 보부아르(왼쪽)와 사르트르.

+i

▲리나=소설가 강영숙이 계간 문학잡지 '문예중앙'에서 연재했던 작품을 책으로 펴냈다. 열 여섯살에 'P국'이라는 이상향을 위해 국경을 넘은 리나. 스물 넷이 되도록 낯선 나라를 방황하면서 겪는 인간의 어지럽고 참혹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랜덤하우스·9천800원〉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오지여행가, 긴급구호 활동가로 유명한 한비야의 책이 7년만에 재출간됐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800km에 이르는 우리 땅을 49일간 걸으며 쓴 국토 종단기다. 7년 세월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우리 땅을 밟은 저자의 정성과 고집이 돋보인다. 〈푸른숲·9천800원〉

▲이기주의를 위한 변명='이기주의'는 무조건 자기만 챙기는 것으로 해석돼 부정적으로 취급받기 일쑤다. 저자 김시천은 동양 고전을 통해 동양적 이기주의, 대인과 소인의 이기주의, 현대인의 권한과 의무 등을 다룬다. 〈웅진지식하우스·1만2천원〉

▲중국속에 일떠서는 한민족=한겨레 신문 차한필 기자가 2년간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섬에서부터 최북단 흑룡강성에 이르기까지 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그들의 사업, 자녀 교육, 문화 활동 이야기 등을 밀착 취재했다. 〈예문서원·1만5천원〉

▲지중해의 기억=지중해를 죽도록 사랑한 노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풍부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지중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선사시대부터 로마의 정복까지 지중해의 역사를 거석, 피라미드, 그리스 신전, 바실리카 등을 통해 이야기한다. 〈한길·2만5천원〉

▲멸종의 역사=생명의 역사는 멸종의 역사와 직결된다. 동물학자인 리처드 엘리스는 고생대 삼엽충에서부터 현대의 판다까지, 포유류부터 조류, 어류, 양서류에 이르기까지 멸종되었거나 멸종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본다. 〈아고라·2만2천원〉

▲사료로 읽는 미국사=한국미국사학회가 문헌 사료를 통해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다. 1번 '콜럼버스에게 하사한 특권과 특전'을 포함해 마지막 장인 '본토 보안법'까지 122개의 자료들을 토대로 미국사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궁리·2만5천원〉

▲보쉬의 비밀 1,2=네덜란드 화가 히로니뮈스 보쉬의 '쾌락의 정원'을 소재로 한 소설이 출판됐다. 1999년 출간 당시 독일 아마존 베스트 셀러에 오르며 화제를 뿌렸던 작품으로 초현실주의적이고 기괴한 작품의 탄생 과정을 추리 형식으로 써내려갔다. 〈생각의 나무·각권 9천800원〉

▲돈 까밀로 러시아 가다=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의 마지막인 열번째 시리즈. 깡패같은 신부 돈 까밀로와 공산당 읍장 삐뽀네가 티격태격하며 펼쳤던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 작가 죠반니노 과레스끼는 등장인물들의 해피소드를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서교출판사·9천500원〉